

“이슬람 문화 몰이해가 아프간 피랍 장기화 원인”

■‘광주아시아인권학교’ 강사 부산외대 이 광수 교수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가 장기화된 것은 우리가 ‘아시아’를 너무 몰랐기 때문입니다.”

‘2007 광주아시아인권학교’의 첫 번째 강사는 노선 부산외국어대학교 이광수(48·러시아 인도통상학부) 교수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의 민주주의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대해 관심이 없다”며 “피랍사태가 51일 동안이나 이어진 것도 이슬람의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고향인 이 교수는 ‘아시아인권학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지역에서 아시아평화인권연대라는 반전평화 NGO 단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었던 그에게 국제사업을 구상하던 5·18기념재단에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평소 아시아의 많은 활동가로부터 ‘한국을 배워보고 싶다’는 뜻을 전해 들었지만 미망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에 안타까워했던 이교수는

기념재단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당시 아시아는 홍콩의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각국의 NGO단체들이 연대하고 있었고 인권위원회는 국가폭력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아시아인에게 법률적 대응, 구호, 반전집회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었다.

탈레반은 전통적 보수사회

한국의 유교사상과 비슷해

하지만 지금도 숱한 정치적, 종교적 분쟁을 앓고 살고 있는 아시아인들은 단기적인 사태를 겪보다는 갈등의 원천을 통합하는 방법을 절실히 원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아시아인은 한국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정작 한국은 분단 등의 문제로 민족주의가 대강해졌고 동북아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이 교수는 “부족한 아시아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민주주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광주가 진정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을 알리고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을 유치해 아시아 국가들을 하나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기자 ahj@

/사진=최현배기자 choi@

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아시아는 비합리적, 비과학적, 비역사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서양식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국가 통치경험이 있는 탈레반을 정치세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테러리스트로 규정,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 본 것이다.

이슬람 + 파슈툰(자유·독립을 숨상하는 전통관습) 사상으로 둉친 탈레반은 전통적인 보수사회로서 한국의 유교사상과 비슷한 점이 많지만 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다.

광주는 한국 민주주의 진원지

아시아 국가 하나로 끌어내야

이 교수는 “부족한 아시아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민주주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광주가 진정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을 알리고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을 유치해 아시아 국가들을 하나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기자 ahj@

/사진=최현배기자 choi@



농촌공 영산강사업단, 분임조 경진대회

5년 연속 ‘대통령 금상’ 영예

한국농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조인현)이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5년 연속 대회 최고상인 대통령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영산강사업단 ‘청정분임조’(조장 박종호)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남도청에서 214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금상을 수상했다.

청정분임조는 관수로 맨홀설의 시공상 문제점을 해결해 9억원의 예산 절감은 물론 설계기준 및 시공법을 제정립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산강사업단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5회 연속 수상으로 건설공사 및 유지관리 부문 품질경영면에서 최고 실력을 인정받았다.

/송기동기자 song@



제 20회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전남도 소방본부 ‘국무총리상’

전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양형)가 최근 충남 천안시 소재 중앙소방학교에서 전국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관계자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20회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사진)

특히 이번 대회 화재진압분야 1위를 수상한 양희민(순천소방서), 최필현, 송종승(이상 여수), 김재훈(광양), 김재상(보성) 씨 등 소방관 5명은 1계급 특진의 영광을 안았다. 도 소방본부는 화재진압분야 1위, 인명구조분야 3위, 응급처치분야 8위의 실적을 각각 올려 종합 2위를 차지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2007년 하반기 죽호학원 장학생 간담회

2007년 하반기 죽호학원 장학생 간담회